

지 상 범 석

반드시 몸에 병듭니다”

“우리몸은 불성지닌 위대한 국토 병이 없어야 정토로 가꿀수 있어요”

침팬지 아닌것 같습니다. 앞에서 정신이 건 강하면 육신의 병도 들지 않는다고 말씀드 렸는데, 이 네가지 법을 청정한 정신에 담 고 있으면 병을 이기고 막는 것 뿐 아니라 진리를 깨우치는데도 지름길이 될 것 같습 니다. 잘 새겨 두시고 모든 일을 네가지 법 에 맞춰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병없이 청정한 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 까요. 나는 근면한 삶의 자세라 봅니다. 근 면한 사람에게는 병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아니, 근면한 사람은 제 몸에 병의 인연을 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 일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 병의 원인을 제 몸에 만들어 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나는 스물여덟의 나 이에 이 불명사에 와서 오늘까지 살고 있 는데 이 끝까지에서 큰 병을 얻지 않았습 니다. 기도하고 자갈밭 개간하는 시간으로

하고 초초한 마음을 쉽게 악을 받아들입 니다. 복잡한 세상 일수록 편한 마음을 가지 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가장 편안한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을 편케 하기 위해서는 소유하지 않 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유야말로 마음 의 편안함이 부처의 자리로 이르게 하는 길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 가수행자에게 일의일발(一依一鉢)로 살 것 을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무소유가 마음의 번뇌를 떨치지 않는 지름길이기 때문이 아니 겠습니까.

될 가지려는 욕심에서 모든 악업이 지어 지고 병마가 자리잡니다. 될 가지 못하는 애달픈 마음에서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 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의 것이 되겠습니까. 설사 그 물건이 백년을 간다면 여러분은 그 백년을 살며 그 물건의 주인 행세 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것은 무상하고 그 무상의 인연이라는 그물 속에서는 주인 도 예측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착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부 지라는 생각도 망념인 것입니다. 그 망념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럽힐 뿐입니다. 무 소유의 진정한 맛은 바로 망념을 차단함으 로 청정심을 유지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즐기며 사는 사람과 그런 맛이 있는 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다를 뿐이겠 습니까.

무소유를 실천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 니다. 일하는 속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버

마음을 비우고 진리를 찾는다는 것이 선방이나 강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쉽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는 가운데는 집착할 것이 많고 따지고 분별할 것이 많 으니까 말입니다. 불사를 하는 스님들이 많 고 불사가 원만히 이뤄져 회향을 하는 것 은 절의 스님과 신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불사를 추진하고 정재를 모아 쓰기 때문입 니다. 말하자면 일 자체가 청정하기에 결과 도 청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세의 일 은 청정을 따지기 이전에 물욕으로 가려지 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의 비리 가 문제되는 것도 공무 속에 유혹이 많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당장의 일에서 초연해지 고 오직 그 일에만 마음을 두다가 마침내 그 마음자리마저 평온해져 일이 저절로저 절로 되어가는 경지가 되어야 도의 경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도의 경지에서 일을 하면 집착도 없어지고 소유욕도 없어 집니다.

무엇에 집착하지 않고 소유를 허거나 못 해서 애달파 하지 않는 마음은 참으로 편 안한 것입니다. 그 편안함은 부처의 마음이 라고 했으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꾸는 일에 근심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



반야심경이 설하 는 것은 '공'에 관 한 것인데 이것을 사리분별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고 공중무쌍 무수상행 식...'이하 '무지 역무득 이무소득...' 까지 설한 내용은 현상일지도 그렇 게 변화하는데 결 리는 시간이 짧았 다는 것이지만 하나 의 현상이 중간단 계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 는 것이 아니었다. 정지해 있던 자동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일체의 모든 것이 다 공에 불과하다는 내용인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체득하지 못하는 이 상 한마디 한마디를 다 말로써 풀이하여 수긍하더라도 '공'을 제대로 이해한 것 이 아니다. 사실 시공간의 불교 모두가 물리적 진공에서 생겨났고 '아'라는 것 까지 단순한 집착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 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공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 을 수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체가 허것이니 무슨 밝고 어두움이 있었으며 생노병사가 있었는가? '고집멸도'도 결 국 집착에 불과한 '아'가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 지혜라는 것은 생명의 활동 을 포함하여 모든

탐욕에서 병마 자라니 필요한것만 소유해야 근면성실하면 망념차단돼 몸·마음 건강 얻어

한 평생이 흘렀으니 언제 병의 뿌리를 키 율것으며 어느 구멍으로 병마가 들어 왔겠 습니까. 적게 먹고 일은 많이 했으니 언제 나 정신이 맑았습니까. 돈이 많지 않아 필 요없는 물건을 사거나 될 갖고 싶어 안달 해야 할 이유도 없었으니 마음도 늘 편했 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 습니다.

마음 속에 번뇌가 많으면 반드시 몸에 병이 듭니다. 말하자면 마음속의 병이 육신 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 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병마도 많이 키웁 니다. 탐욕 그 자체가 병이니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은 병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 니다. 불명사의 약수가 좋다고 해서 매일매 일 약수를 뜨러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 질 않습니다. 약수를 뜨러 여기까지 오는 그 마음에 이미 건강은 깃들여 있는 것입 니다. 거기다 청정생수를 정성껏 가져다 먹 는 근면함이 약수를 더욱 좋은 약수로 만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병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편안한 마음은 어 떤 약에도 물들지 않는 힘을 갖지만 불안

니까. 무소유란 정말 현실성이 없는 것일까 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고민을 다 풀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알려 주셨습 니다. 그걸 알면 되는 것입니다. 소유되되 반드시 필요한 것만 소유해야 합니다. 남치 면 병이 됩니다. 필요치 않은 것을 소유하 려고 애를 쓰면 이미 탐욕인 겁니다. 탐욕 의 선을 밟지 않고 적당한 소유를 하는 지 혜를 가지면 무소유의 단축한 정신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유물에 대한 집착을 하지말아야 하고 욕심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아야 합 니다. 나의 것이냐 너의 것이냐 하는 분별 심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주인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주인이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누구의 것이더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데 무엇이 누구의 주인이고 소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인연이 그렇게 닿아서 만 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든 몇푼의 돈이 언제부터 여러분의 것이었고 언제까지 여 러분의 것이겠습니까. 그 돈으로 뭘 사면 그 돈은 남에게 가고 사들인 물건이 대신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지만 그 물건은 또

르느 즐거움 이 있는 것 입니다. 봉 영사 앞의 자갈밭에 가 을이면 풍성 한 수확의 기쁨이 깃들 수 있는 것 은 불과 여 름동안의 땀과 노동이 있었기 때문입니 다. 될 수확하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의 대가는 언제나 즐거운 것입니다. '하 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너 무나 유명한 청규는 일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기보다는 일을 하며 몸과 마음 을 바로 세우는 진리의 중요성을 더 강조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땅 파고 씨뿌리는 것만 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사를 돌보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남을 위해 짐을 들어주던 다 중 요한 일입니다. 일 속에서 우리는 집착하지 않는 지혜와 무소유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 다. 일하는 동안 그 일에 열중하면 그 순간 이 참신하고 간경입니다. 그런데 일하며

편안한 마음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 니합니다. 스스로 찾아야하고 길러야 하는 것 입니다. 이미 자신에게 있는 그 자리를 속 히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팔뚝을 잘라 달 미에게 바치며 법을 구했던 헤카에게 스승 은 '마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헤카는 찾아도 찾아도 찾을 길 없는 마음을 '이미 내가 네 마음을 편케 했다'는 스승의 한마 디 앞에 서 비로소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 의 편안함 마음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 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든 볼 수 있습니 다. 물욕으로 가리지 말고 탐심으로 더럽히 지 말고 근면 성실한 삶의 자세를 이어가 는 가운데 문득 찾아낼 수 있는 자리가 그 것이기도 합니다.

“오직 그 일에만 마음을 두다가 마침내 마음자리마저 평온해져 일이 저절로 되어갈 때 도의 경지라 할 수 있어요”

양자도약 발견후 불연속적 변화 인정 돈오믿어야 분별지 초월 속박 벗게돼

풀이하는 허깨비 장난에 불과할 뿐이다. '시고공중...'이하 '...이무소득'까지를 말로써 풀이하고 이해하려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별지의 차원에서 불교 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별지로 이해하고 그친다면 남은 것은 허무밖에 없다. 허무를 뛰어넘으려면 분별지를 뛰어 넘어야한다. 어떻게 분별지를 뛰어 넘 어넘어야한다. 어떻게 분별지를 뛰어 넘 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말과 이해의 차 원을 넘어선 것이기에 말로 설명할 수 없지 않더라도 현상이 있다는 것은 물 리학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

선승들은 돈오와 점수에 관해 얘기하 고 있다. 점수란 점차 닦아나가는 것이 고 돈오란 일시에 깨달음을 얻어 새로운 차원의 경지에 들어서는 것을 뜻하는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돈오이 다. 속박상태에서 점수란 없다. 물론 정 신적인 현상을 물리적 현상으로부터 추 론하여 결론을 끌어내는 것에 무리가 있 지만 정신-물질의 일원론을 받아들인 다면 물리적 현상에서 돈오와 점수를 추 론해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일 것이다.

현대물리학이 탄생하기전 물리학자들 이 자연의 변화에 대해 알고 있던 것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밖에 없었다.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질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속박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 불 연속적이다. 갑자기 이 상태에서 또 상태 로 변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예로 들면 1 이라는 값이 중간값을 거치지 않고 갑자 기 100이라는 상태로 변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도 과거의 경험 발은 교육 등으로 인해 속박되어 있다. 불교적인 표 현으로 집착에 의해 속박되어 있다. 사람 의 마음속으로부터 집착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더라도 사람은 시공간에 존재하 면서 시공간적 변화를 바탕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한다. 분별지란 시공간적 존재 가 갖는 한정된 지혜이다. 따라서 분별지 로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것은 사물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래서 선승들은 돈오를 말했다.

반야심경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필요 하다. 물리적 진공의 묘한 작용으로부터 '공'을 집착하고 양자도약으로부터 속박 된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돈오뿐이라 는 믿음이다. 돈오후 반야지를 갖게 된 다는 믿음이 있어야 경전을 의식의 눈초 리로 보지 않고 '시고공중...' 이무소득' 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 이 전 믿음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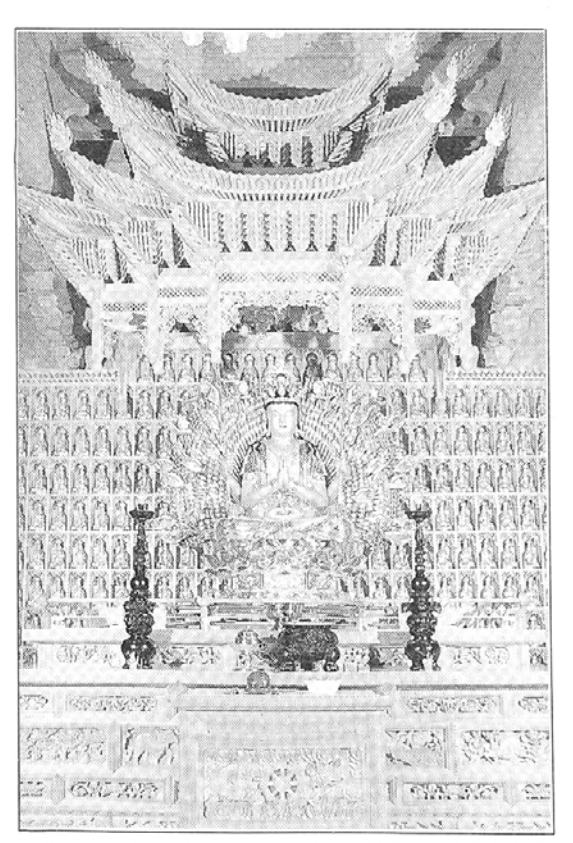
(이화여대 교수·물리학)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상, 천불조상, 목탱화, 개공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단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전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대표 이진형 합장
 ■부산사무실 (051) 556-0541~3